

2023.01.27(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1-27 오전 3:10

수정한 날짜: 2023-01-27 오전 10:22

2023.01.27(금) 증권사리포트

카카오게임즈

타석에 많이 올라야 홈런을 칠 수 있다

[\[출처\] 하나증권 유예지 애널리스트](#)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

4분기 매출액 2,581억원(YoY -10.0%), 영업이익 344억원(-28.3%, OPM 13.3%)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 매출 1,520억원(YoY -24.0%, QoQ -22.8%)로 신작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마무스메와 오딘이 하향 안정화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추정한다. 오딘은 일매출 10억원 초반으로 매출 하향 안정화 마무리 단계로 판단하며, 1분기 일본, 4분기 북미/유럽 출시 예정으로 각국 일매출은 첫 분기 기준 일본(2억원)/북미·유럽(2억원)으로 가정한다. 우마무스메 운영 개선 및 수영복 마루젠스키 픽업/하프애니버서리 이벤트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벤트 유무에 따라 등락은 있으나, 주요 픽업 이벤트가 있을 시 매출 순위 5위권 안으로 들어오며 IP 가치 일부 회복했다고 판단하며, 1분기 일매출 3억원으로 추정한다.

나타나기 시작한 신작 효과

1월 5일 출시한 서브컬처 게임 <에버소울>은 출시 일주일차 국내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매출을 포함할 경우 당사의 추정치인 일매출 4억원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출시 예정작 <아키에이지 워>는 1월 11일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며, 1월 16일 기준 사전예약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모바일 MMO 신작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는 2분기 말 출시될 것으로 추정하며, MMO 신작 두 작품 모두 첫 분기 평균 일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출시 예정 <가디스오더>는 <가디언테일즈> 유사한 게임성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장르 특성상 첫 분기 일매출 5억원으로 추정하나 상황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목표주가 55,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의 55,000원 유지한다. 2023년에는 모바일 신작을 통한 성장, 2024년에는 PC MMO 대작인 <아키에이지 2> 출시가 예정되어 라인업이 탄탄한 만큼 피어 평균 대비 50% 프리미엄을 부여해 23F PER 30배를 적용했다.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495.5	1,012.5	1,170.1	1,777.2	1,891.2
영업이익	십억원	66.5	111.9	201.2	365.9	401.6
세전이익	십억원	77.9	722.1	210.1	358.3	394.1
순이익	십억원	86.0	528.7	74.8	161.6	206.9
EPS	원	1,379	7,061	938	1,964	2,514
증감율	%	600.00	412.04	(86.72)	109.38	28.00
PER	배	33.36	12.89	47.60	23.04	18.00
PBR	배	3.39	3.35	1.76	1.66	1.52
EV/EBITDA	배	33.11	45.59	13.04	7.00	5.99
ROE	%	12.12	34.06	3.62	7.64	8.99
BPS	원	13,557	27,156	25,352	27,316	29,830
DPS	원	0	0	0	0	0





LG이노텍

4분기 기대 이하. 2023년 증익 기대

[\[출처\] IBK투자증권 김운호 애널리스트](#)

22년 4분기. 기대 이하

LG이노텍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21.5% 증가한 6조 5,477억 원이다. 이전 전망과 유사한 규모이다. 매출액 증가는 광학솔루션이 주도하였다. 전장 부품도 부품 수급 개선으로 3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 부품은 3분기 대비 감소하였다. 원/달러 환율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61.8% 감소한 1,700억원이다.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과 연말 재고처리 비용, 성과급 지급 등 1회성 비용 발생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률은 3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2.6%이다. 광학솔루션. 가판소재 사업부가 3분기 대비 크게 부진하였다.

23년 1분기, 비수기지만 예년 계절성보다 나은 수준

LG이노텍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22년 4분기 대비 23.1% 감소한 5조 3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기타 전자부품 사업부를 제외한 전 사업부가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 규모는 광학솔루션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22년 4분기 대비 11.4% 증가한 1,894억원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학솔루션은 매출액 감소로 전 분기 대비 부진하지만 기판소재 사업부는 영업이익률 정상화에 따른 이익개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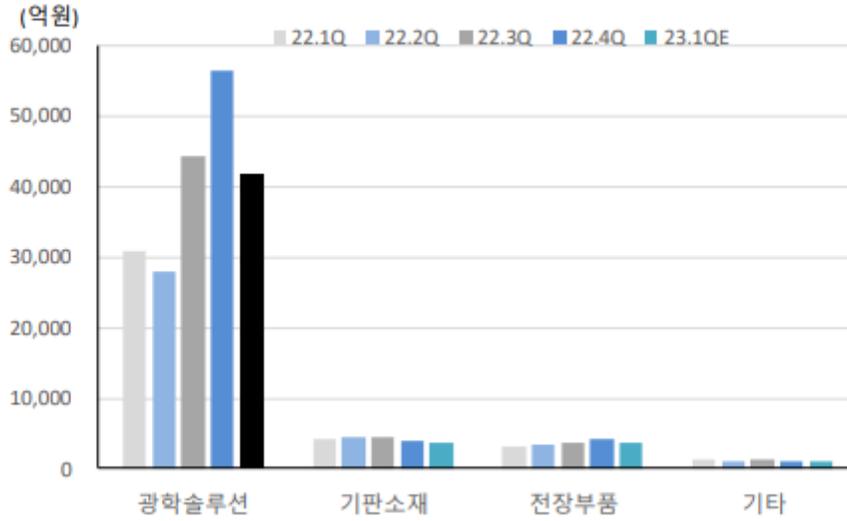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50,000원 유지

LG이노텍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 이는 광학솔루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연간 1 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22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매 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2023년에도 이익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450,000원을 유지한다.

(단위:억원,배)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95,418	149,456	195,896	233,564	247,030
영업이익	6,810	12,642	12,718	15,309	19,245
세전이익	4,428	11,932	11,408	14,538	18,557
지배주주순이익	2,361	8,883	8,284	11,245	14,317
EPS(원)	9,977	37,532	35,003	47,512	60,492
증가율(%)	130.8	276.2	-6.7	35.7	27.3
영업이익률(%)	7.1	8.5	6.5	6.6	7.8
순이익률(%)	2.5	5.9	4.2	4.8	5.8
ROE(%)	10.2	30.9	21.8	23.4	23.9
PER	18.3	9.7	7.2	5.9	4.6
PBR	1.8	2.6	1.4	1.3	1.0
EV/EBITDA	4.0	4.7	3.8	3.1	2.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LG이노텍 분기별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LG이노텍,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LG이노텍 분기별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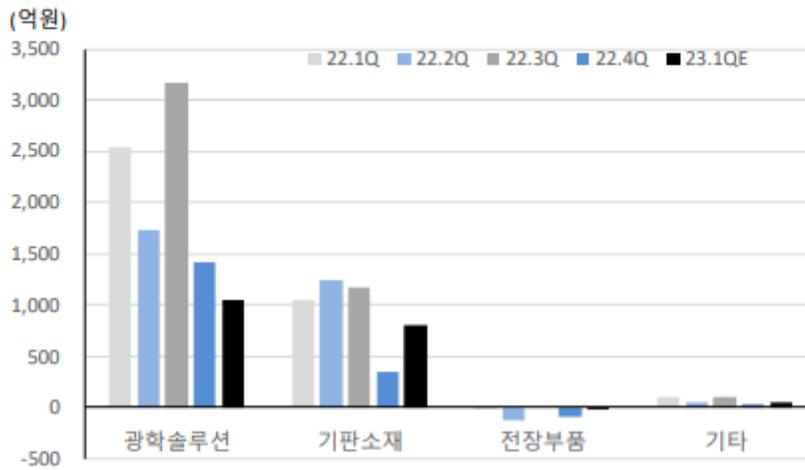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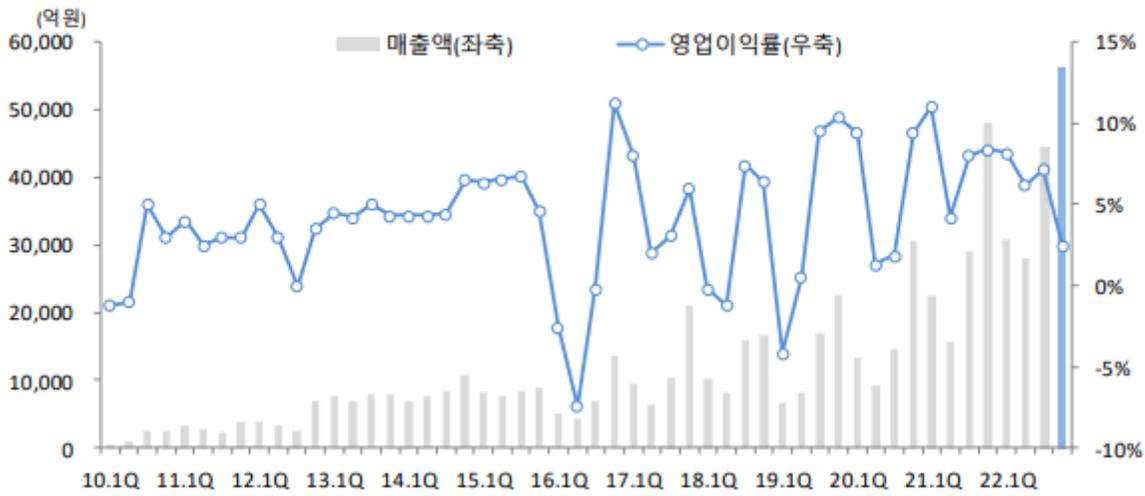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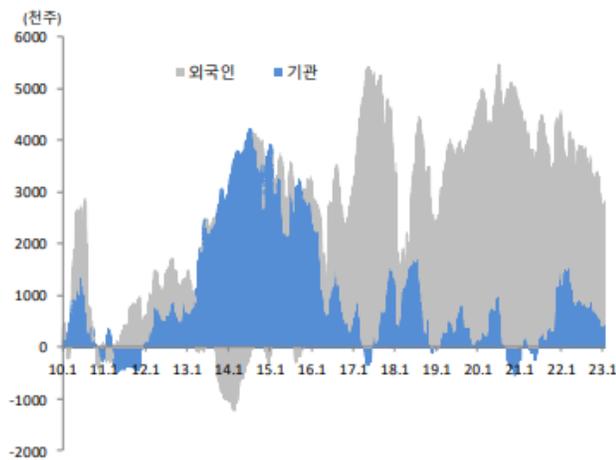


그림 3.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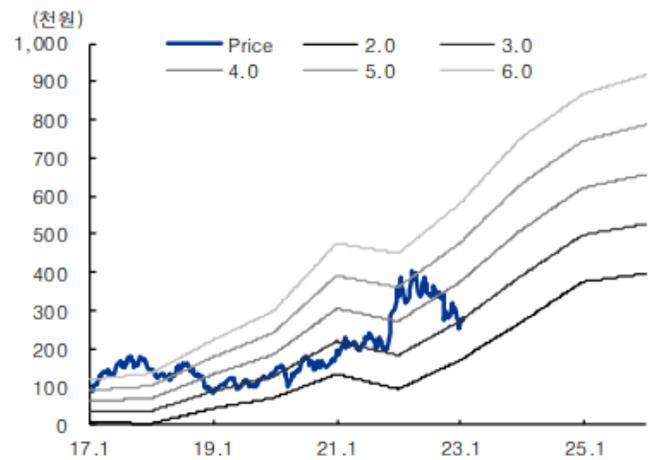
자료: LG이노텍,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LG이노텍 투자주체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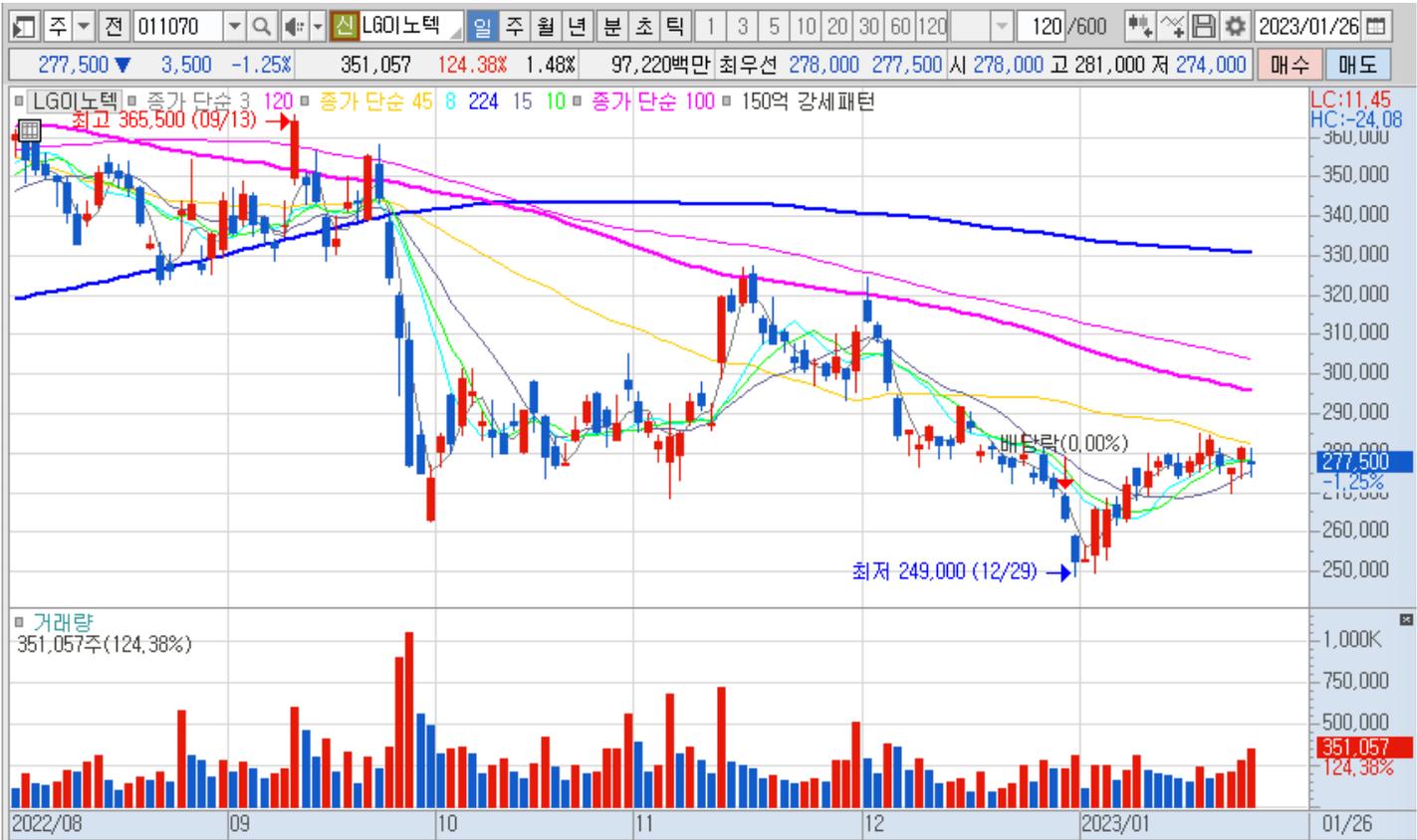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LG이노텍 EV/EBITDA 밴드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F

4Q22Pre : 중국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시기

[\[출처\] 하나증권 서현정 애널리스트](#)

4분기 영업이익 1,850억원(YoY 1%) 추정

4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 1% 증가한 5,732억원과 1,85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MLB 매출은 -2% 예상하는데, 채널별로 순수 내수는 6% 성장, 면세는 24%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위축과 비우호적 날씨 영향에 기인한다. 디스커버리는 12월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11% 성장을 예상한다. 중국법인의 경우 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는데, 오프라인 1%, 온라인 30% 성장을 전망한다. 4분기 중국의 확진자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 환경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경기 회복에 거는 기대

4분기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은 국내와 중국 법인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내수 채널의 경우 소비위축과 함께 추세적인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중국법인의 경우 1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소비 회복 시 높은 실적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F&F의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i) 매출 성장률이 YoY 20% 이상 지속되고 있고, ii) 매장수 확대 구간이며(2023년 매장수 증가 YoY 16% 추정), iii) 온라인 채널에서 30% 이상의 고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연간 중국 매출은 9,000억원(YoY 45%)으로 추정한다. 점진적인 면세 채널 정상화는 추가적인 실적개선 요인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2만원→20만원 하향

실적 추정치 하향조정에 따라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내린다. 20만원은 12MF PER 15배다. 4분기 실적을 비롯한 제반리스크는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한다. i) 중국의 점진적인 소비 경기 회복과, ii) 지속되는 펀더멘탈 개선세, iii) 중국 소비재 업체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여력을 감안하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0.0	1,089.2	1,823.4	2,290.0	2,528.6
영업이익	십억원	0.0	322.7	552.8	695.3	758.0
세전이익	십억원	0.0	322.5	562.8	700.5	763.6
순이익	십억원	0.0	231.9	413.6	514.9	561.2
EPS	원	0	9,094	10,798	13,441	14,651
증감율	%	N/A	N/A	18.74	24.48	9.00
PER	배	0.00	20.78	13.38	11.02	10.11
PBR	배	0.00	13.14	6.00	4.07	2.96
EV/EBITDA	배	0.00	21.34	9.85	7.56	6.42
ROE	%	0.00	42.37	56.42	44.56	33.98
BPS	원	0	14,385	24,084	36,430	49,986
DPS	원	0	1,100	1,100	1,100	1,100





삼성전기

MLCC 재고조정의 끝이 보인다

[\[출처\] 키움증권 김지산 애널리스트](#)

4분기 전 사업부 부진 속 FC-BGA만 양호

4분기 영업이익은 1,012억원(QoQ -67%, YoY -68%)으로 시장 예상치 하단 수준이었다.

MLCC는 IT Set 수요 약세와 중국 고객사 재고조정 영향으로 IT 및 산업용 제품의 출하량 감소폭이 컸다. 중국 내 코로나 대유행과 생산차질로 인해 4분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카메라모듈이 적자 전환하며 예상보다 더욱 부진했는데, 국내외 주요 거래선의 연말 재고 감축 강도가 컸기 때문이다.

패키지솔루션은 모바일 및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중심의 BGA가 뚜렷한 하락세인 반면에, FC-BGA는 네트워크 및 전장용 제품 위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기판 내에서 차별적인 방향성을 입증했다.

MLCC 완만한 회복세 기대, 유통재고 정상 수준 근접 중

BGA와 카메라모듈에 대한 실적 눈높이를 더욱 낮춰야 하겠지만, MLCC는 4분기 기저효과를 딛고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도래함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재고 감소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MLCC 업황 개선 조짐으로서 Oppo, Vivo, Xiaomi 등 중국 3사의 스마트폰 유통 재고량은 9월을 정점으로 2개월간 소폭 감소세를 보

였다. 고객사들의 재고 감축 노력과 MLCC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에 따라 유통재고는 1분기를 경과하면서 정상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은 1,237억원(QoQ 22%, YoY -70%)으로 추정된다. MLCC의 수익성이 6년 만에 최저인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전장용을 중심으로 가동률을 높여 갈 계획이고, IT 및 산업용 수요는 2분기부터 본격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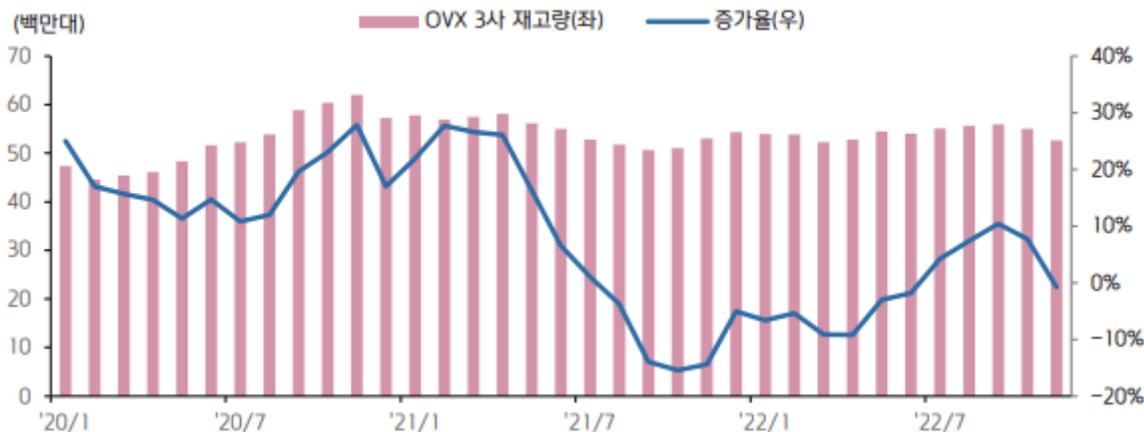
올해 BGA의 매출 감소폭이 클 텐데, 그나마 하반기 ARM 프로세서용 FC 기판 수요가 일부 방어해 줄 것이다. FC-BGA는 대면적 제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신규 베트남 공장의 양산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 카메라모듈은 출하량 모멘텀이 부족하지만, 주고객 Flagship 모델의 2억화소 카메라 채택 효과로 판가가 양호할 것이다

투자지표

(억원, IFRS)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77,533	96,750	94,246	84,707
영업이익	9,127	14,869	11,828	8,341
EBITDA	17,539	23,533	21,821	19,931
세전이익	8,689	14,913	11,868	8,162
순이익	6,238	9,154	9,935	6,12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6,040	8,924	9,806	6,060
EPS(원)	7,783	11,500	12,636	7,809
증감률(%YoY)	17.4	47.8	9.9	-38.2
PER(배)	22.9	17.2	10.3	19.0
PBR(배)	2.39	2.28	1.34	1.44
EV/EBITDA(배)	8.0	6.4	4.4	5.3
영업이익률(%)	11.8	15.4	12.6	9.8
ROE(%)	10.9	14.3	13.8	7.8
순부채비율(%)	6.3	-2.4	-5.3	-10.4

자료: 키움증권

중국 OVX 3사 스마트폰 유통 재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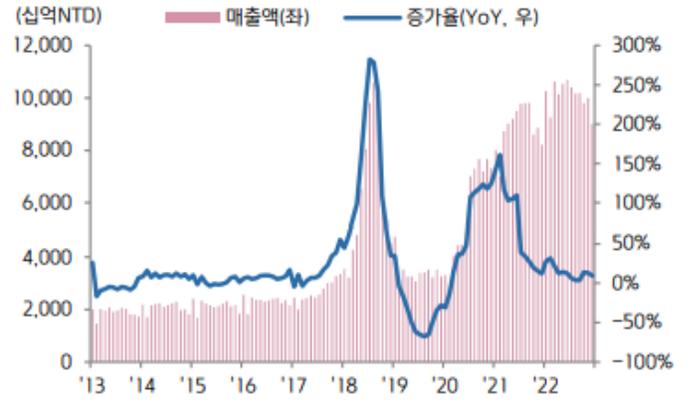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갤럭시 S23 울트라 예상 이미지: 2억화소 카메라 예상



자료: 인터넷

Yageo 월별 매출액 추이



자료: Yageo, 기음증권





서부T&D

드래곤시티(호텔) 날다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실적 턴 어라운드

서부T&D 4분기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3분기 동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354억 원(전년동기대비 +49.9%), 영업이익 65억 원을(전년동기대비 +570.1%) 기록. 3분기 실적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호텔사업부가 턴 어라운드에서 성공하였기 때문. 3분기 드래곤시티호텔 매출액은 229억 원(전년동기대비 +80.3%), 영업이익 5억 원(흑자전환)을 기록. 지난해 동분기 적자규모가 -2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는 추세로 판단.

호텔사업부 실적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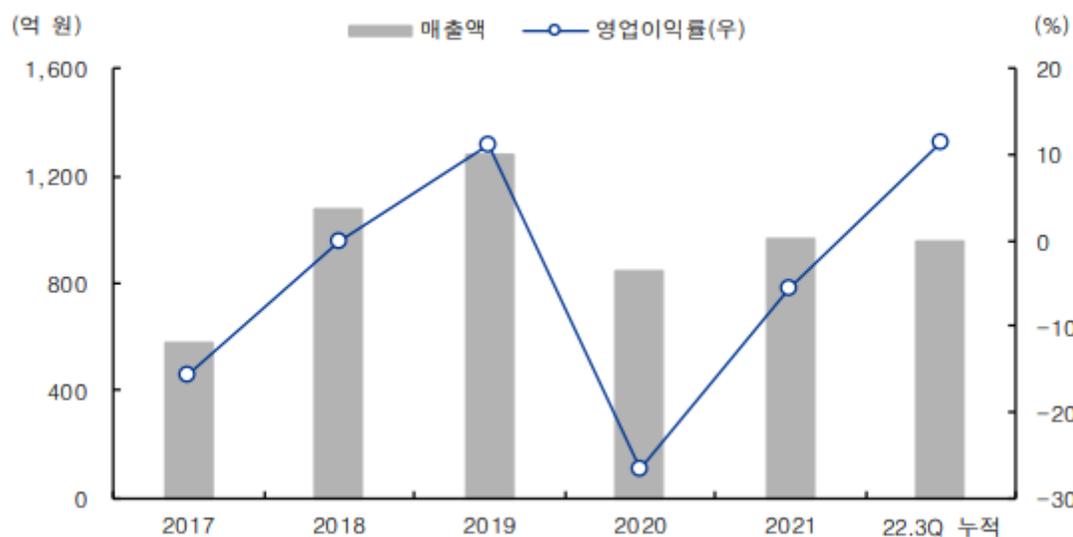
호텔 사업부 실적 성장 추세는 4분기 그리고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1) 서울 호텔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업황 회복과, 2) GKL사업장 운영에 따른 숙박 수요 증가 3) 낮은 ADR에 따른 상승 가능성, 4)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수요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2023년 동사의 OCC는 약 70%, ADR은 16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당사에서 가정한 동 수치도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한 이유는 ▶ 수요 회복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 정켓수요 증가에 따른 ADR 상승, ▶ 동사의 객실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경우 ADR의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2023년 매출액은 약 94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동 추정은 GKL 임대수익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사업부로 보면 더욱 높아질 전망

(단위:십억원,배)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58	108	128	85	97
영업이익	-9	0	14	-23	-5
세전이익	-5	-7	22	-36	36
당기순이익	-8	-10	0	-35	40
EPS(원)	-146	-169	1	-563	654
증가율(%)	-398.3	15.3	-100.5	0.0	-216.0
영업이익률(%)	-15.5	0.0	10.9	-27.1	-5.2
순이익률(%)	-13.8	-9.3	0.0	-41.2	40.2
ROE(%)	-1.5	-1.6	0.0	-5.5	6.2
PER	-75.7	-48.0	10,756.3	-12.9	13.4
PBR	1.0	0.8	0.8	0.7	0.8
EV/EBITDA	-346.6	58.7	34.7	-350.4	123.6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주: 2019년까지는 개별, 2020년부터는 연결기준임.

그림 1. 서부T&D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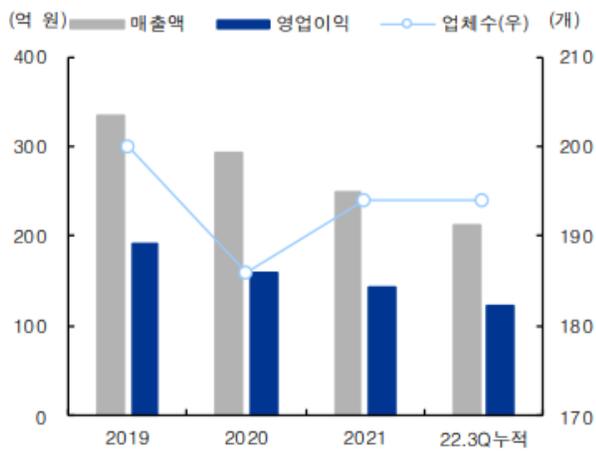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Seoul Dragon City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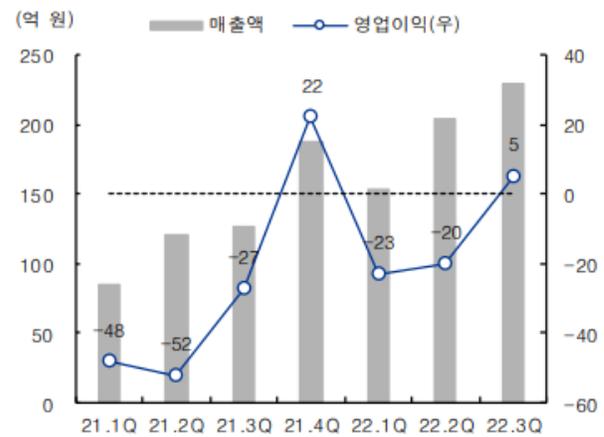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그림 3. 스퀘어원 영업실적 및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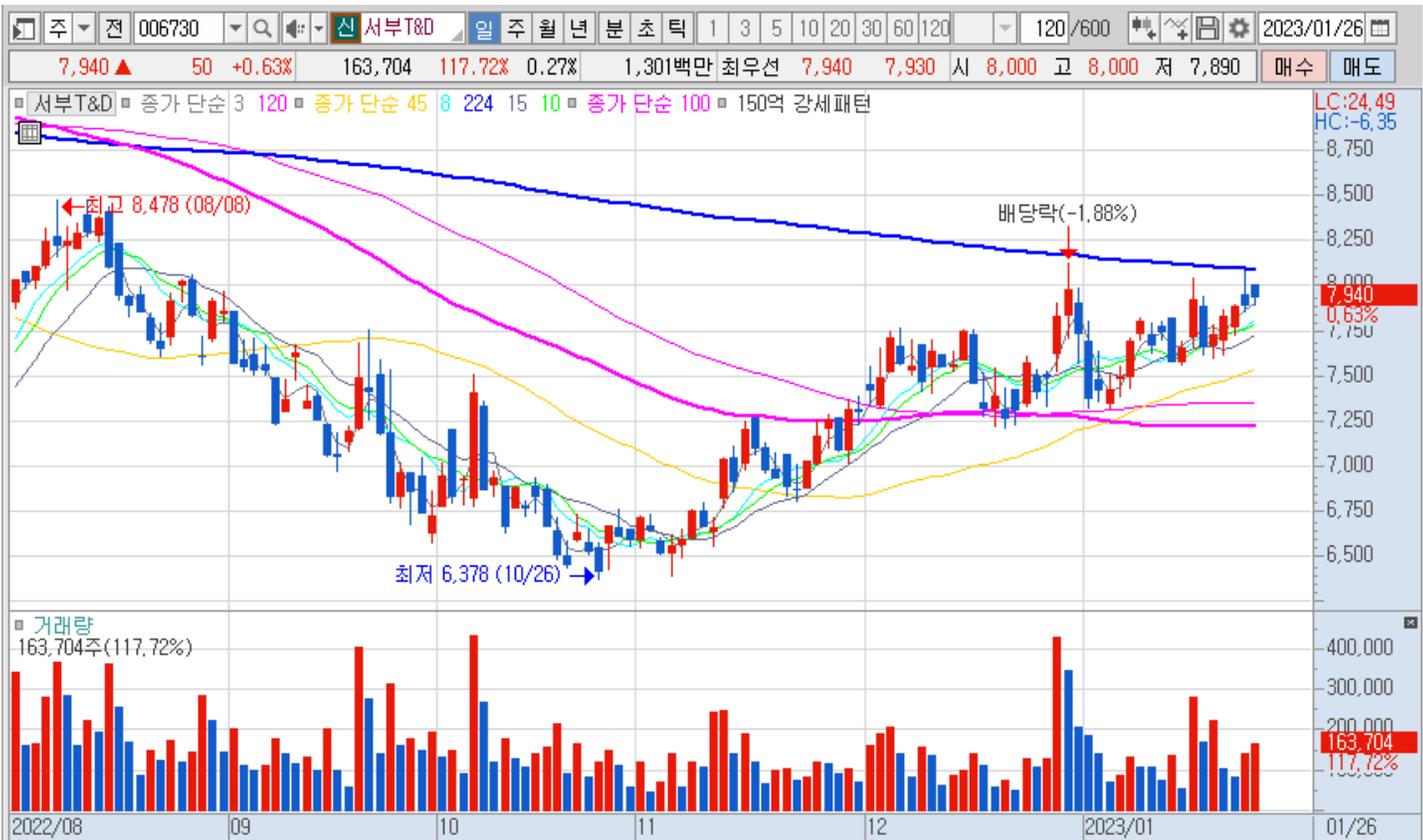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그림 4. 서울 드래곤시티 분기별 매출액 추이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네오위즈

4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으나

[\[출처\]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애널리스트](#)

4Q22 Preview: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전망

네오위즈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708 억원(+2.2%yoy), 영업적자 10 억원(적자전환%yoy, OPM -1.4%)를 전망한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29 억원)를 하회할 전망이다. 4분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광고시장 침체로 광고 매출 둔화가 예상된다. '고양이와 스프'도 광고 매출 부진과 3분기 1주년 업데이트 기저로 매출이 부진할 전망이다. 자회사 게임온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4분기 출시된 신작 3종의 매출 기여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용에서는 개발 자회사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건비 상승, 지스타 참가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유니티공동 개발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라오는 'P의 거짓' 기대감

동사는 올해 3분기 'P의 거짓' 출시 전에 'GDC 2023'(3월)나 'E3'(6월) 등의 게임쇼에 참석해 이를 시연할 예정이다. 따라서 2분기에는 관련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출시 이후에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사는 'P의 거짓'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기존 판매량 추정치(2023년 200만장, 라이프타임 300만장)를 유지한다. 올해에는 'P의 거짓' 외에도 많은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브라운더스트2' (어드벤처 RPG), '프로젝트 IG'(방치형 RPG), '고양이와 스프'IP 신작 3종 등은 동사의 매출에 유의미한 기여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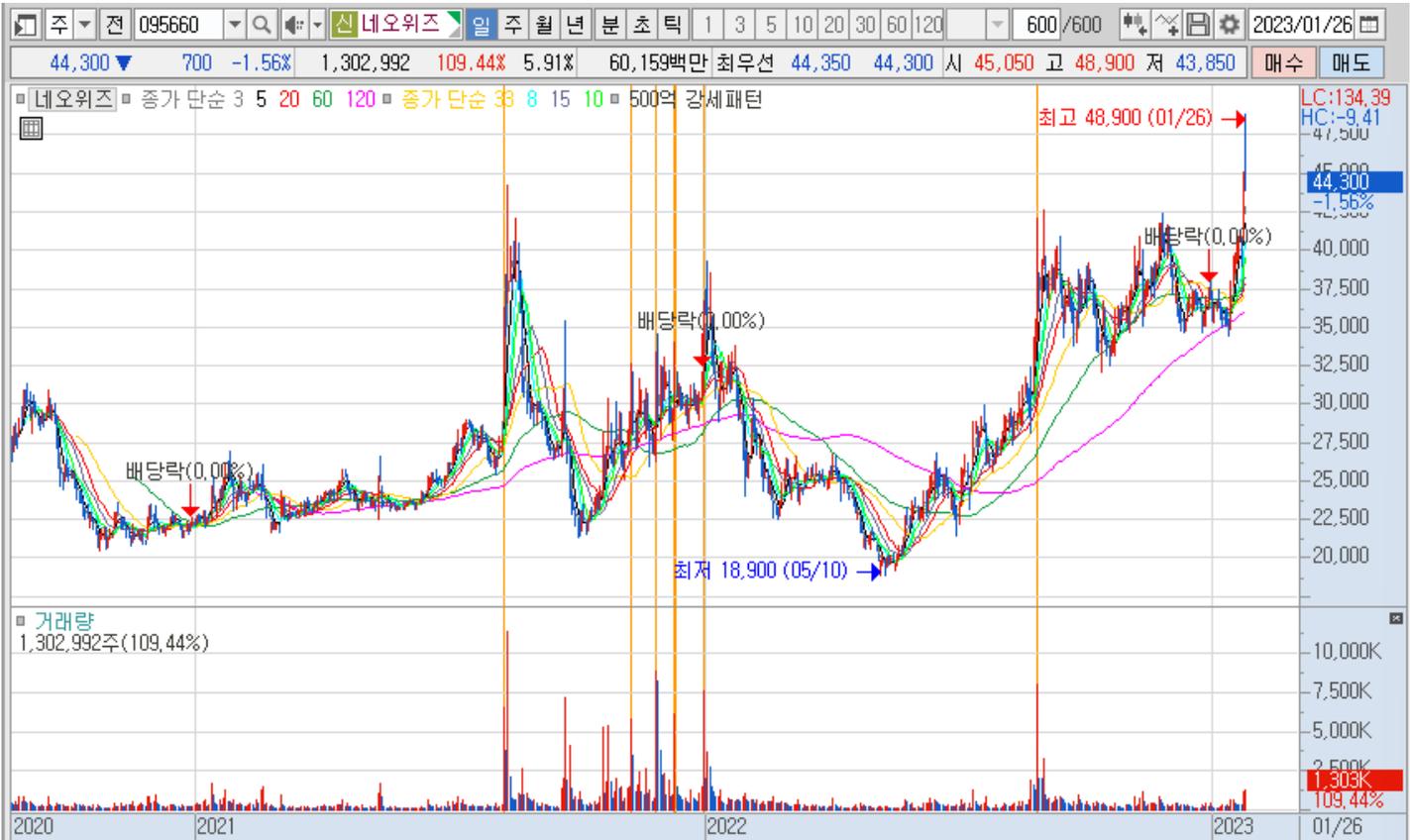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2,000 원 유지

지난해 7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지속되는 광고시장 침체도 주가에 부담이겠으나, 올해 다수의 신작 라인업 출시 일정과 흥행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P의 거짓'은 출시 전 게임쇼 시연 등으로 모멘텀이 발생될 여지도 다분하다. 이에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2,000원을 유지한다.

결산기(12월) (단위: 십억원)	4Q22E			시장 전망치	1Q23E			2021A	2022E		2023E	
	예상치	qoq (%, %p)	yoy (%, %p)		예상치	qoq (%, %p)	yoy (%, %p)		예상치	yoy (%, %p)	예상치	yoy (%, %p)
매출액	71	-5.5	2.2	74	77	8.5	0.2	261	293	12.0	422	44.2
영업이익	-1	적전	적전	3	6	혹전	-46.0	21	21	0.5	92	331.8
세전이익	2	-78.3	-91.0	9	8	360.4	-48.1	64	50	-22.3	102	104.1
지배순이익	1	-82.6	-92.7	5	6	345.1	-46.6	57	41	-27.2	81	95.5
OP Margin	-1.4	-8.4	-7.2	3.9	7.9	9.2	-6.7	8.1	7.3	-0.8	21.9	14.6
NP Margin	2.0	-8.9	-25.5	7.4	8.2	6.2	-7.9	21.7	14.6	-7.1	19.1	4.5
EPS(원)	258	-82.6	-92.7	908	1,150	345.1	-46.6	2,577	1,875	-27.2	3,667	95.5
BPS(원)	22,927	3.4	10.0	22,906	23,214	1.3	11.4	20,846	22,927	10.0	26,594	16.0
ROE(%)	1.1	-5.5	-15.8	4.0	5.0	3.8	-5.4	13.4	8.6	-4.8	14.8	6.2
PER(X)	153.3	-	-	43.6	34.4	-	-	14.0	21.1	-	10.8	-
PBR(X)	1.7	-	-	1.7	1.7	-	-	1.7	1.7	-	1.5	-

자료: 네오위즈, 유진투자증권

주: EPS는 annualized 기준



토비스

전방도 좋고 전장도 좋다

[\[출처\] NH투자증권 심의섭 애널리스트](#)

고성장을 이어갈 산업용 모니터와 전장 사업 매출 성장 본격화

엔데믹 전환에 따른 카지노 업황 회복이 지속되며 올해에도 동사 산업용모니터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와 더불어 지난해 동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던 대외환경(환율, 패널 가격, 운임) 또한 개선되며 이익 성장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신차 출시, 출고 지연 등으로 가동률이 당초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며 개선되는 추세. 증설 중인 서천 공장은 상반기 내 완공이 기대되어 2분기 말부터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전반적인 매출 확대에 따라 매 분기 전장 사업 적차 축소가 지속되어 하반기에는 분기 실적 흑자전환 전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 분기 성장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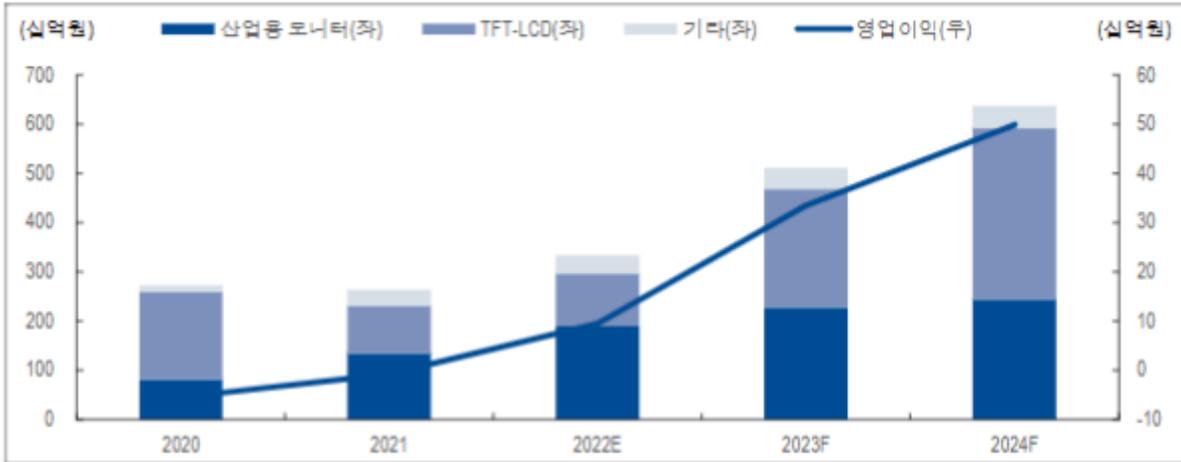
산업용 모니터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성과가 점차 실적으로 반영되며 매분기 안정적인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내년에는 국내 증설 효과 온기 반영 및 자회사 세일하이텍과 시너지 또한 가시화될 전망

카지노 업황 호조세를 반영하여 2023F 산업용 모니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나 전장 사업 추정치는 소폭 하향 조정. 지난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동사 실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판단되며, 현 주가는 2023E 기준 PER 6.6배 수준으로 성장성 대비 저평가

	2021	2022E	2023F	2024F
매출액	263.4	334.2	510.6	637.0
증감률	-3.4	26.9	52.8	24.7
영업이익	-0.9	9.5	33.5	50.0
증감률	적지	흑전	252.3	49.3
영업이익률	-0.3	2.8	6.6	7.8
(지배지분)순이익	1.3	2.6	25.0	39.7
EPS	75	159	1,525	2,419
증감률	흑전	111.0	857.4	58.6
PER	113.5	59.5	6.6	4.2
PBR	0.8	0.8	0.8	0.7
EV/EBITDA	18.5	8.9	3.9	2.1
ROE	0.7	1.4	12.5	17.2
부채비율	85.6	82.4	72.4	60.9
순차입금	56.6	36.5	1.4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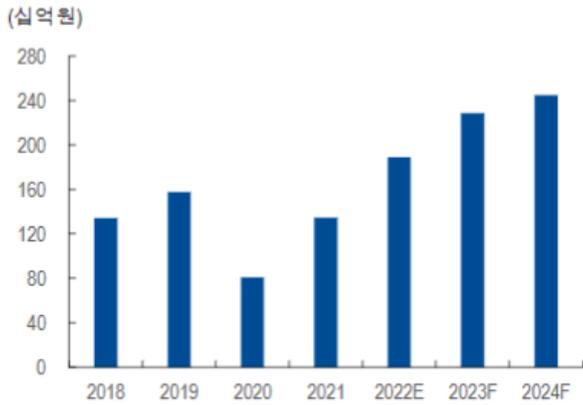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사업 부문별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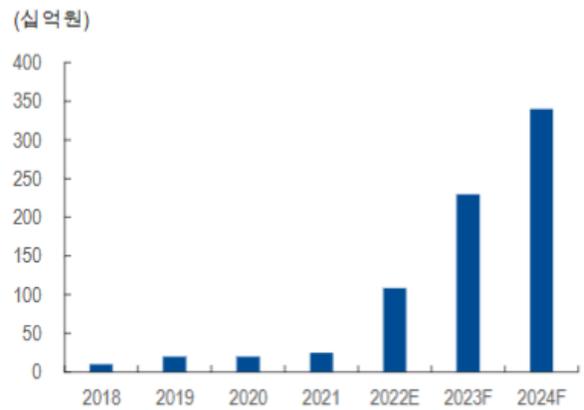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 1. 산업용(카지노) 모니터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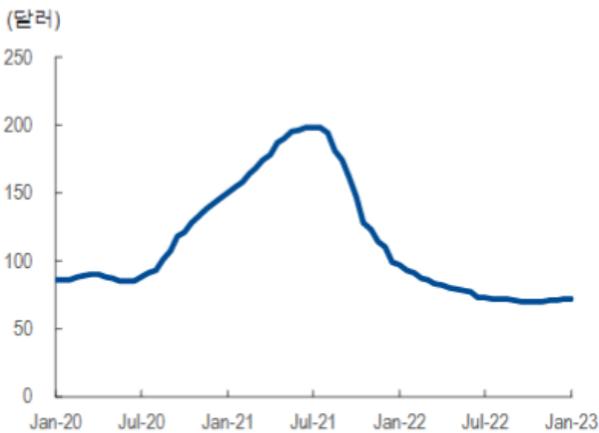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 2.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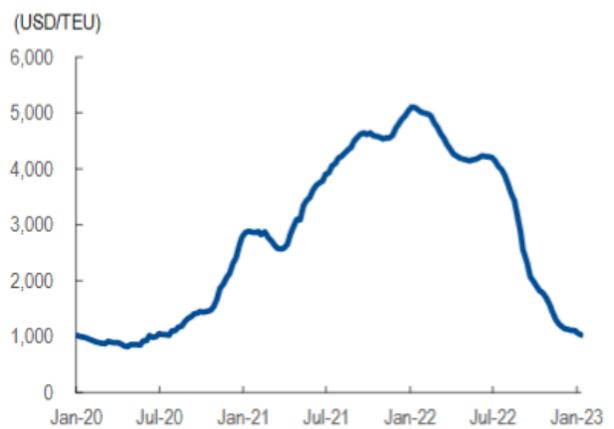
자료: 토비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 3. TV 패널 가격 추이(50인치 기준)



자료: WitsView,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4. SCFI 운임 자수 추이



자료: Shanghai Shipping Exchang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